2007년, 낙농체제의 기본틀 확립할 때

강 성 원
본회고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우리 낙농인들은 변함없이 20년 이상을 "낙농이 살아서 발전하고 생존하는 길은 낙농체제의 기본틀을 올바로 짜는 것 뿐이다"라고 외쳐왔습니다. 낙농체제의 기본틀은 우유의 소비에 입각한 수급문제가 그 핵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급문제는 사실상 모든 낙농산업의 조건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원유생산량, 품질, 가격 등 우유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산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농산업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낙농인은 가장 큰 집단이면서도 그 생존여건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수급실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업체가 직접 집유하고, 수매하는 원유가 상당량 됩니다. 이것을 흔히들 문전옥답(門前玉畓)이라고들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의 집유수매가 있습니다. 셋째 낙농진흥회의 집유, 수매, 판매가 있다. 이들 집유수매 주체들은 각기 생산쿼터를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가공업체는 그들이 발행한 쿼타를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가 잘 안되면 주어진 쿼터보다 낮은 생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흥회는 판매하지 못한 물량처리에 쩔쩔맵니다.

우리는 이런 난맥상이 왜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소비에 맞는 수급은 우리 낙농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혼을 쏟아부어 생산한 원유가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는 현상을 막고 귀한 대접을 받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책은 수급을 스스로 맞춰 나가는 길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아닌 다른 기관이나 힘에 맡긴다 하더라도 목장 착유량이 수요에 공급을 맞춰야 한다는 기본책임을 그들이 덜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업체와 직결되어 있는 낙농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현상에 길들여져서 안주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또한 조합경영이야 멍들어가건 말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진흥회 소속 낙농인들도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모두 하나같이 먼 장래를 내다볼 때 희망적인 조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낙농인과 운명을 같이 할 이유를 가진 이는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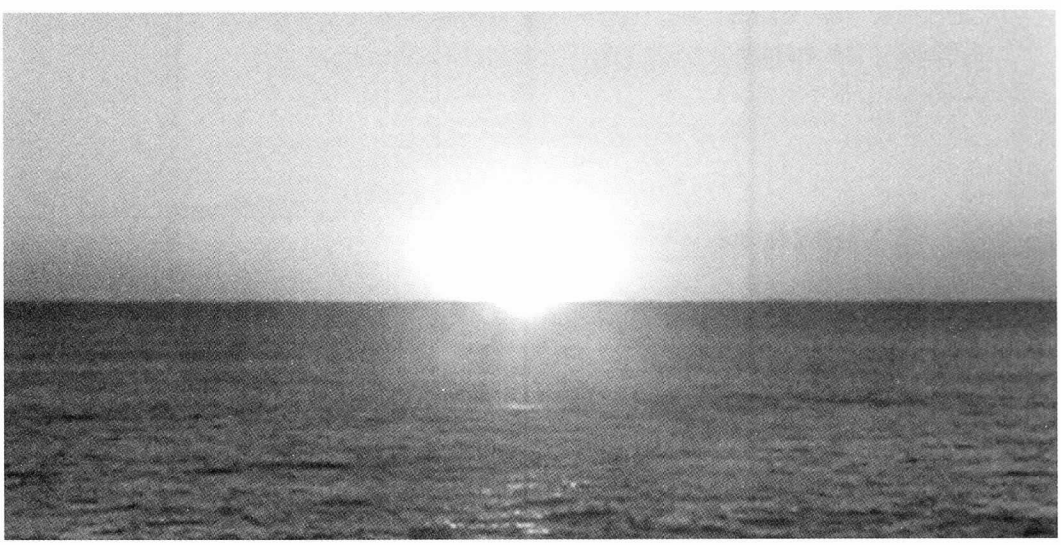
이제 이 나라 낙농을 지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정부도 유가공업자도 조합도 아닌 우리 낙농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낙농인들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기희생을 바탕에 둔 총단결을 이루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원유생산량을 스스로 결정하고 둘째, 공평한 생산량 배정을 하기 위하여 전국 단일 쿼타제를 확립하고 셋째,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획기적 노력을 스스로 하는 기초를 정립하고 넷째, 정당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외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단결함으로써 1. 소비 가능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여 2. 우리가 계산한 판매가격으로 3. 유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소비확대 노력의 성과는 낙농인 전체가 공평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낙농인의 단결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존단체들의 장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정신을 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낙농의 항구적 미래를 위하여, 전 국민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우유를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낙농인의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유가공업자들의 안정적 우유가공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낙농의 생존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며 그것은 낙농인의 단결로만 가능함이 확실합니다.